

신설교학 : 개별 청중으로 방향 전환

조광현

(고려신학대학원, 조교수, 설교학)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초록]

신설교학은 전통적인 설교가 더 이상 현대 청중에게 매력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는 비판 위에서 태동했다. 신설교학에 따르면, 전통적인 설교는 설교자의 권위에 근거한 설교자 중심 설교이며 성경의 장르나 청중의 청취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 아이디어 중심 설교이다. 전통적인 설교를 반대하며, 신설교학은 청중 중심 설교를 구현했다.

청중 중심 설교를 추구하는 신설교학자들은 설교를 대화로, 청중을 설교의 파트너로 규정했다. 대화로서 설교 안에서, 청중은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지 않고, 오히려 설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설교를 개인적으로 경험한다. 성경 내용을 가르치는 설교의 전통적인 임무 대신, 청중이 이미 성경 내용에 익숙하다는 전제 위에서 신설교학자들은 청중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설교를 추구했다. 청중에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교학자들은 성경 본문의 문학적 장르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다양한 설교 형식을 개발하였다. 신설교학은 새롭고 확장된 청중 이해에 근거해 현대 설교학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설교에서 청중의 역할을 과도하게 부여하다 보니, 신설교학에서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각자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개별적인 청중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신설교학이 설교를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경험도 개별 청중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경험이다. 끝내, 신설교학은 개혁주의신학이 강조한 설교와 교회 공동체의 밀접한 관계를 간과하고 개별 청중 중심의 설교를 강화하였다.

키워드: 신설교학, 청중 중심 설교, 청중의 경험, 설교의 형식, 내러티브 설교, 설교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

논문투고일 2023.01.31. / 심사완료일 2023.02.27. / 게재확정일 2023.03.02.

I. 서론

개혁주의 신학은 이전의 로마 가톨릭에 비해서 교회 내에서 설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집행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¹ 칼빈에게 있어 설교는 교회를 존재하도록 하는 표지였다.

개혁주의 신학과 마찬가지로 ‘신설교학’ 또한 설교에 관한 관심을 촉발했다. 심지어 폴 윌슨(Paul Wilson)은 신설교학의 영향에 대해서 중세나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설교에 관해 이렇게 큰 바람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² 신설교학은 설교 실천과 이론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신설교학은 현대 설교학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관심을 끌고 있고,³ 이머징 교회 설교 등 새로운 설교 실천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설교학의 영향에서 예외는 아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일군의 설교학자들이 신설교학을 계속해서 소개해 왔는데, 이제 신설교학은 설교학 연구에서 가장 중핵적인 주제가 되었다.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먼저 신설교학의 주된 특징을 기술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 비평을 통해 결과적으로 신설교학이 개혁신학이 강조해 온 설교와 교회 공동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간과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II. 본론

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1023.

2 Paul Scott Wilson, *The Practice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12

3 예를 들어 O. Wesley Allen ed., *The Renewed Homiletic*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4 조광현, 김현숙,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내 설교학 분야 연구동향 연구,” 『성경과 신학』 102 (2022), 45.

1. 신설교학의 특징

신설교학은 하나의 설교의 이론과 실천이 아니다. 다수의 설교학자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설교의 이론과 실천이다. 그러나 그 다양한 설교의 이론과 실천은 친족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유전적으로 연결되고 명백히 닮았다.⁵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신설교학을 친족 관계로 묶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1) 설교에서 청중의 역할 강화

신설교학은 전통적인 설교자와 청중 관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전통적인 설교학은 권위적인 설교자와 수동적인 청중이라는 전제 위에서 작동했다. 그러나 이제는 설교자의 권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전통적인 설교자와 청중 관계가 용인될 수 없는 시대이므로, 새로운 형태의 설교자와 청중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반권위적 또는 탈권위주의 시대에 적절한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는 설교자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청중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롤란드 알렌(Ronald Allen)은 신설교학의 이와 같은 특성을 “청중으로 방향 전환”이라는 말로 설명했다.⁶

프레드 크래독(Fred Craddock)은 현대 설교학이 청중을 재발견하고 청중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그의 기념비적인 책, 『권위 없는 자처럼』(*As One without Authority*)에서 전통적으로 애호되었던 연역적 설교 대신 귀납적 설교를 주장하였다. 크래독에 따르면, 연역적 설교는 설교 초반에 결론을 선언한다. 그러므로 연역적 설교는 설교자 편에서는 “대화”나 “듣는 것”이 없는 설교이며 청중 편에서는 어떤 “공헌”도 할 수 없는 설교이다.⁷ 그러나 귀납적 설교에서는 귀납적 전개를 통해 청중은 설교의 파트너로 격상된다.

⁵ Eugene L. Lowry,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12.

⁶ Ronald J. Allen, “The Turn to the Listener: A Selective Review of a Recent Trend in Preaching,” *Encounter* 64, no. 2 (2003), 166-196.

⁷ Fred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역, 『권위 없는 자처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110.

귀납적 전개가 청중을 파트너의 위치로 격상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귀납적 전개를 통해 청중은 비로소 설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크래독에 따르면, 귀납적 전개는 설교자의 성경 연구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연역적 형식과는 달리 설교자가 본문을 연구한 귀납적 과정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청중을 초대한다.

귀납적 설교는 청중이 설교에 참여할 권리만이 아니라 설교를 완결할 권리도 보장한다. 크래독은 전통적인 연역적 설교에서는 청중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인 설교자에 의해 결단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귀납적 설교는 설교자의 권위로 결단을 강요하는 대신, 청중 스스로 결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다. 청중은 귀납적인 전개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⁸

이처럼 크래독은 청중의 권리에 관심을 가졌다. 귀납적 설교는 청중이 설교에 참여하고 설교를 완결할 권리를 인정한다. 당연히 전통적인 설교에 비해 청중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청중은 설교의 적극적인 파트너이며, 그에 따라 설교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대화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유진 라우리(Eugene Lowry)는 설교에서 청중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법을 자신의 설교 방법론인, '설교 플롯' 안에 구현했다. 설교 플롯은 갈등으로부터 시작해 갈등의 심화 단계로 나아가고, 이후 극적인 반전과 함께 해결되면서 종결된다.⁹ 설교 플롯은 청중에게 긴장감을 제공하는데, 청중은 이 긴장감 때문에 설교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설교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더 나아가, 라우리는 "설교자는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믿음과 용기의 자유 안에서 끝내는 새로운 대화로 부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¹⁰ 크래독과 마찬가지로 라우리도 설교를 대화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자신의 권리를 청중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123.

9 Eugene L. Lowry, *Doing Time in the Pulpit: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and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52.

10 Eugene L. Lowry,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89.

전통적인 설교에 내재하고 있는 설교자와 청중 간 위계적 관계를 비평하면서 루시 로즈(Rucy Rose)는 그 대안으로 대화 설교를 제안하였다.¹¹ 로즈의 대화 설교의 출발점은 설교자와 청중의 동등한 파트너십이다.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이며, 설교자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잠정적인 해석” 그리고 “제안”을 한다.¹² 그러므로 대화 설교에서 설교자는 권위적인 인물이 아니다. 설교가 선포가 아닌 제안이므로, 청중은 설교자의 메시지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권리도 지닌다. 제안과 제안에 대한 해석을 통해 설교자와 청중의 대화는 계속될 수 있다. 로즈도 설교의 파트너로서의 청중의 역할과 설교가 대화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설교의 권위적인 설교자와 수동적인 청중 관계를 비판하며 발생한 신설교학은 설교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청중의 역할을 강화해 나갔다.¹³ 청중 중심 설교는 신설교학의 가장 큰 특징이다.

(2) 경험을 제공하는 설교

전통적인 설교가 본문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신설교학은 설교 안에서 청중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라우리는 이를 ‘핵심’과 ‘효과’라는 말로 명쾌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핵심’이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저절로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핵심이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다. 설득력 있는 스토리에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무엇인가가 있다. “아, 거 무슨 애긴지 핵심은 알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반응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¹⁴

11 비록 로즈는 자신의 대화 설교와 신설교학을 구분하기를 원했으나, 로즈의 대화 설교는 신설교학 안으로 포함될 수 있다. Lowry, *The Sermon*, 31을 보라.

12 Lucy Atkinson Rose, *Sharing the Word: Preaching in the Roundtable Church* 이승진 역, 『하나님 말씀과 대화 설교』 (서울: CLC, 2010), 194.

13 신설교학의 영향으로 최근 설교학 이론에서 청중의 역할은 더 확대되고 있다. 정재웅, “설교자의 권위에 관한 비평적 고찰: 프레드 크래독 이후 북미 현대설교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설교한국』 11 (2020), 123-134를 보라.

14 Eugene L. Lowry, *How to Preach a Parable*, 이주엽 역, 『설교자여,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돼라』 (서울: 요단, 1999), 19.

전통적으로 설교는 핵심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설교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설교가 청중에게 경험이라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신설교학의 목적이다.

청중의 경험은 크래독의 귀납적 설교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귀납적 설교는 청중의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 귀납적 설교가 진행됨에 따라, 청중의 경험은 청중에게 유비와 일체감을 제공하여 청중이 설교에 참여하도록 하고, 끝내 자기 스스로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만든다. 귀납적 설교는 경험과 함께 시작하고 경험과 함께 끝난다.

귀납적 움직임 또한 명제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납적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설교자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귀납적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해 발견한 설교자의 경험은 설교 내의 귀납적 움직임을 통해 그대로 청중에게 재현된다. 토마스 롱(Thomas Long)은 크래독의 시도를 다음과 같이 적절히 평가한다.

그는 결코 개념이나 사상을 본문에서 설교로 운반하는 다리가 아니라 발견 과정 자체를 운반하는 경험적 다리를 제시한다. 그가 원하는 것은 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고스란히 설교의 사건들로 재현되는 것이었다.¹⁵

크래독은 설교자의 석의의 경험이 설교에서 청중에게 그대로 경험되기를 기대했다. 귀납적 설교는 귀납적 움직임을 통해 청중에게 경험을 제공한다.

라우리도 설교는 본질적으로 경험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설교 플롯은 경험적인 사건을 만들어 내는 방편인데, 그의 설교 플롯의 핵심 단계 중의 하나는 “복음을 ‘경험’하게 하기”이다. 복음은 청중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리차드 에슬링거(Richard Eslinger)는 라우리의 목표가 청중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¹⁵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이우제, 황의무 역, 『증언 설교』(서울: CLC, 2019), 203

언급한다.

설교자와 회중은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찾지 못하여 긴장감과 문제 의식을 계속 지니고 간다. 그런 와중에 해결책은 계시처럼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회중을 깜짝 놀라게 한다. “감각적으로 표현하면 그 상황은 바로 ‘아하!’이다. 이 감탄으로 인해 이제까지의 모든 혼란은 하나의 해결점을 찾는다.” 이런 해결점은 회중에 의해 ‘인식’되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다.¹⁶

이 지점에서 신설교학이 설교의 목적을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대신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에는 신해석학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잠시 언급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에른스트 폭스(Ernst Fuchs)와 게하르트 에벨링(Gerhard Ebeling)과 같은 신해석학의 중심인물들은 언어가 정보를 전달하는 이상의 기능, 즉 개별적인 자아로 하여금 지금 무엇인가를 경험하도록 하는 기능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러한 언어의 기능을 ‘언어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같은 신해석학의 주장은 신설교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설교를 지금 일어나는 경험적 사건으로 보도록 하고 설교의 목적을 청중에게 그런 경험적 사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했다.¹⁷ 신해석학의 통찰을 설교학 분야로 처음으로 가지고 온 데이비드 랜돌프(David Randolph)는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설교는 성경 본문이 해석되어 그 의미가 청중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표현되는 사건이다.”¹⁸ 신설교학자들은 설교에서 청중의 경험을 만들어 내는 것을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3) 설교 형식에 대한 관심

16 Richard L. Eslinger, *The Web of Preaching*, 주승중 역, 『설교 그물짜기』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8), 49.

17 조광현, “신설교학의 중심 주제, 언어의 사건성: 그 신학적 기원과 영향,” 『복음과 실천신학』 46 (2018), 213-217.

18 David James Randolph, *The Renewal of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9), 1.

신설교학자들의 주된 과업은 새로운 설교 구성과 형식을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라우리는 신설교학을 “설교 형식의 새로운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¹⁹ 롱 또한 신설교학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간 대부분의 설교학 저서나 논문의 초점은 설교 형식에 맞추어져 왔다고 해도 크게 빗나간 말은 아닐 것이다.”²⁰

신설교학자들은 전통적인 설교가 즐겨 사용해 온 논리적인 설교 형식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으로부터 기원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크래독은 대지와 요점으로 나누어지는 전통적인 설교가 복음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구조를 통해 증거”했다고 비판한다.²¹ 라우리는 신설교학을 “수사학적인 원리와 구조로부터 생겨난 오래된 설교로부터의 탈피”로 설명한다.²²

신설교학은 전통적인 설교 형식을 벗어난 대안적인 설교 형태를 성경에서 찾아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성경 신학계의 패러다임 전환 때문이었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는 그 전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최근에는 또 다른 전환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역사적 영역으로부터 문학적 영역으로 바뀐 전환이다. ... 문학 비평가들의 연구를 이끌어 가는 틀 또는 지배적인 사상은 문학이다. 그러기에 성경을 문학으로 고려하는 그 자체가 학문적 노력의 시작이며 끝인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학적 대상으로 간주된다.²³

신설교학자들은 문학비평의 발전을 수용하면서, 성경이 설교의 내용만이 아니라 설교의 형식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리고 성경의 문학적

¹⁹ Eugene L. Lowry, “The Revolution of Sermonic Shape,” in *Listening to the Word: Studies in Honor of Fred B. Craddock*, eds. Gail R. O’Day and Thomas G. Lo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93.

²⁰ Long, 『증언 설교』, 236.

²¹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97.

²² Lowry, “The Revolution of Sermonic Shape,” 100.

²³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김영철 역,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서울: 여수론, 2012), 106.

장르를 설교의 형식에 녹아내려고 노력했다. 크래독은 설교자들이 수사학이 아니라 성경의 문학적 장르에서 설교 형식을 배울 때, 설교의 갱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설교학 교실에서 여러 훈련을 받았음에도 언제나 강단에 서기만 하면 삼대지로 설교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 비유, 시, 신화, 찬송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의 근육은 긴장되고, 그의 신경이 크게 설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비로소 설교자는 새로운 활기를 느끼게 해 줄 강단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다.²⁴

이와 같은 성경의 장르에 관한 관심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신설교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성경 본문으로 방향 전환”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²⁵

신설교학자들은 성경의 문학적 장르 외에도, 앞서 언급한 라우리의 설교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자신들이 설정한 설교의 목적, 곧 청중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교의 형식을 창안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신설교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래디 데이비스(Grady Davis)는 설교의 형식을 “생성적인 아이디어(generative idea)”가 계속 이어지는 유기적인 과정이라고 칭했는데, 설교자의 마음에 착상된 생성적인 아이디어는 끝내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공유하는 경험을 끌어내게 된다.²⁶ 데이비스에 따르면, 경험을 끌어내기에 적합한 유기적인 과정이 바로 설교의 형식이 된다.

신설교학자들은 청중의 듣는 방식에 근거해 설교의 형식을 창안하기도 했는데, 데이비스는 설교 형식을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청각적인 움직임”이라고 정의했다.²⁷ 크래독도 청중이 어떻게 듣느냐에 귀납적 설교의 근거를 두었다. 크래독에 따르면, 청중은 귀납적으로 사고하고 귀납적으로 듣는다.²⁸ 그래서

²⁴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97.

²⁵ Gail R. O'Day and Thomas G. Long, “Introduction” in *Listening the the Word: Studies in Honor of Fred B. Craddock*, eds. Gail R. O'Day and Thomas G. Lo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11-12.

²⁶ H. Grady Davis, *Design for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8), 182.

²⁷ Davis, *Design for Preaching*, 22.

²⁸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117.

귀납적 형식은 청중의 듣기에 적합한 설교 형식이다.

이처럼 신설교학자들은 성경의 문학적 장르, 청중의 경험, 청중의 듣는 방식 등 다양한 근거에 의해 다양한 설교 형식을 만들어 내었다. 설교 형식에 관한 관심은 신설교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며, 이와 같은 신설교학의 특징은 설교학적 논의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2. 신설교학에 대한 비평

신설교학이 생겨난 이래로, 신설교학은 전통적인 설교 이론과 실천을 대체하면서 설교학계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설교학은 전통적인 설교학의 약점과는 또 다른 성질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신설교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이전 장에서 다루었던 신설교학의 공통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비평하고자 한다.

(1) 청중의 역할 이해에 대한 비평

신설교학은 청중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고, 그 결과 설교에서 청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래서 신설교학자들은 청중을 설교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설교를 대화로 인식했다. 그래서 청중을 설교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했다. 또한, 성경이나 설교자의 요구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청중이 스스로 설교의 결론을 내리게 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신설교학자들의 청중 이해는 현대 문화의 반권위적 혹은 탈권위적 상황 속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어떤 권위도 전제할 수 없다는 가정 위에서 있다. 예를 들어, 크래독은 “더 이상 설교자들은 성직자로서의 권위와 직제에 대한 권위, 혹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전제할 수 없게 되었다.”²⁹ 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신설교학자들은 성경 또는 설교자의 권위를 약화하는 반권위적 또는 탈권위적 설교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성경과 설교자의 권위를 벗겨낸 결과, 완전한 반권위적이고 탈권위적

29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51.

설교가 창안된 것이 아니라 다른 권위가 이전의 권위를 대체한 것일 뿐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설교에서 권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설교의 권위가 청중에게로 옮겨간 것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 신설교학에서는 본문이나 설교자가 아니라 이제는 청중이 설교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청중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는 점이다. 청중이 언제나 옳다고 가정한다면 설교가 존재할 의미가 없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55문은 설교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죄인들을 그들 자신에게서 끌어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또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유혹과 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셔서,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십니다.

설교는 청중을 변하게 해야 한다. 청중은 설교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해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하고자 하는 청중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설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특히 현대의 소비자 중심적이고 흥미 위주의 문화에서 자라난 현대 청중의 기대는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권위가 사라지고 청중의 권위만 인정되는 신설교학적 설교 이해 속에서 청중은 외부로부터 오는 권위적 목소리로 수정되기보다는 자기 내부의 목소리만 들을 가능성이 크다. 신설교학의 설교에 대한 청중은 설교에서 가장 권위적인 요소가 되었다.

설교에서 청중의 역할을 과도하게 상정한 신설교학적 이해는 설교자의 독특한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도 낳았다. 설교자가 설교 행위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 때문이 아니라 설교자가 전달하는 성경 본문 때문이다. 그레이다누스는 설교자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설교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받은 주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라야 그들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과연 설교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는 계시의 규범적 원천이 성경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한다면 스스로를 성경에 매이도록 해야 한다.³⁰

신설교학자들은 설교자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권위로 설교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 설교자의 권위는 설교자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권위이다.

신설교학의 청중 이해는 설교자만의 독특한 역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신설교학자들은 설교자와 청중의 차이를 할 수 있는 한 없애고자 하였다. 설교자와 청중의 차이를 너무 없애버린 나머지, 대화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이 원탁에 앉아 대화하는 것을 이상적인 설교로 취급한다. 설교자가 청중에게 잠정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완벽한 설교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대화와 설교는 같을 수 없다. 설교에는 설교자가 존재하고, 설교자는 청중이 하는 역할과는 구별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설교자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권위주의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교회 직분자의 합법적인 사역을 무시한 결과이다.³¹

(2) 경험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비평

신설교학은 전통적인 설교의 목적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 대신, 청중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설교의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설교에 있어서 경험을 부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경험 중심적 신앙으로 환원시켜 신앙에서 인식적이고 반성적인 측면을 간과하도록 만들 수 있다. 신앙에는 경험적 요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적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경험도 기독교 신앙의

³⁰ Greidanus,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34.

³¹ Long, 『증언 설교』, 76-77.

관점에서 적절히 반추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과 교리,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리고 설교는 가르침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자 기회이다. 그러나 신설교학은 좋은 방법과 기회를 사용하는 데 인색하다. 신설교학이 기독교 기본 진리와 교리를 전하는 데 주저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³²

신설교학자들은 설교에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미 충분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중과 의미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 할 수는 없으나, 크래독은 당시 대다수 미국인들이 성경에 익숙하고 상당 수준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³³ 그러므로 크래독을 비롯한 신설교학자들은 청중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청중의 지겨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대 청중이 과연 성경에 익숙한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이미 후기 기독교 사회로 이행했다.³⁴ 후기 기독교 사회의 청중은 성경과 신학적 지식에 무지하다. 성경과 복음에 대한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청중에게³⁵ 경험을 제공하는 설교만으로 그들의 기억이 회복할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청중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설교가 과연 이 시대에 적절한지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신설교학자들의 방법론이 과연 그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설교자가 경험을 제공하는 설교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안된 설교 형식, 곧 귀납적 형식이나 설교 플롯을 따라 매주 설교한다면, 그 형식 자체도 청중에게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설교 플롯의 결정적 요인은 긴장인데, 긴장 요인이 청중에게 친숙해져 버린다면 설교의 목표로서의 경험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고, 성취된

32 예를 들어, 김창훈, “포스트모더니즘과 설교,” 『헤르메니아 투데이』 56 (2013), 44.

33 Fred B. Craddock, *Overhearing the Gospel* (St. Louis: Chalice Press, 2002), 17.

34 David James Randolph and Robert Stephen Reid, *The Renewal of Preach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Next Homiletics Commentary* (Eugene: Cascade Books, 2009), 4.

35 Walter Brueggemann, *Biblical Perspectives on Evangelism: Living in a Three-Storeyed Univers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90.

다고 하더라도 설교자의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수 있다.

(3) 설교 형식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 대한 비평

신설교학은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신설교학의 관심은 다양하고도 효과적인 설교 형식이 개발되는 모태가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에 대한 과한 관심이 ‘무엇을’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신설교학의 영향 아래서, 설교자들은 전통적으로 설교가 강조해 온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청중에게 호소하고 청중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설교 형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신설교학자들은 성경이 설교의 내용만이 아니라 설교의 형식에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신설교학의 특징 중 하나를 ‘성경 본문으로 방향 전환’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설교학자들이 성경에 포함된 모든 문학적 장르에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며 내러티브 장르에 배타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에 따라 신설교학자들을 통해 내러티브 형식의 설교가 급격하게 발전했다. 사실 신설교학의 특징은 ‘성경 본문으로 방향 전환’이 아니라 ‘내러티브 성경 본문으로 방향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

신설교학자들은 다양한 성경의 문학적 장르를 요점과 대지로 바꾸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설교학자들은 반대로, 다양한 성경의 문학적 장르를 모두 내러티브 형식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단지 하나의 문학 형식을 유일한 설교 형태로 고수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다양한 문학적 장르는 그것들만의 “내적 논리”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³⁶ 그러니 성경의 문학적 장르를 고려하는 것이 단지 내러티브 설교를 하는 것으로 치환되어서는 안 된다.

신설교학의 영향 아래 내러티브 설교가 주된 형식으로 사용되면서, 교회

³⁶ Richard L. Eslinger, *A New Hearing, A New Hearing: Living Options in Homiletic Method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87.

안에 가르침이 사라졌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은 “내러티브 설교가 충분하지 않을 때(When Narrative Is Not Enough)”라는 논문에서 내러티브 설교가 성경 속에 포함된 가르침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성경이 아무리 많은 내러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명제로 이루어진 내용도 풍부하다. 사실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성경의 특별한 능력은 성경이 시간을 초월하여 그리고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를 초월하여 의미를 조절하는 내러티브와 명제적 형식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⁷

채플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내러티브와 아울러 명제적 가르침도 담고 있다. 설교에서 둘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하다.

신설교학자들은 내러티브 설교를 가장 주된 설교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예수님의 비유에 둔다. 그들은 설교자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내러티브 설교를 설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⁸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가 현대 설교의 주된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그들의 믿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설교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데이비드 알렌(Daivd Allen)은 “만약 비유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가르침의 근거라면, 왜 사도행전이나 바울, 베드로, 요한, 유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의 서신서들에 나타나는 사도적 설교에 비유가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적절히 묻는다.³⁹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이 설교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설교하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설교하는 데 더욱 집중하였다. 또한 비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유일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비유 대신, 예수님도 자신에 관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셨다(눅 24:27). 비유가 예수님의 유일한 가르침의 방식은

³⁷ Bryan Chapell, “When Narrative is not Enough,” *Presbyterion* 22 no. 1 (1996), 4.

³⁸ Campbell, *Preaching Jesus: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1997), 272.

³⁹ David L. Allen, “A Tale of Two Roads: Homiletics and Biblical Authority,”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3, no. 3 (2000), 500.

아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가 설교 형식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신설교학자들의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3. 개별 청중으로 방향 전환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논의했던 신설교학에 대한 비평이 직간접적으로 신설교학의 개인주의적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설교학이 개혁주의신학과는 달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청중을 간과하고 개별 청중 중심 설교를 강화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학자는 신설교학의 청중 중심적 설교, 곧 ‘청중으로 방향 전환’을 ‘교회로 방향 전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도 했다.⁴⁰ 그러나 신설교학에서 고려하는 청중이 과연 공동체적 교회인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오히려 신설교학이 설교에서 청중의 역할을 확대한 것은 설교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신설교학자들은 설교에서 청중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설교를 열린 대화로 생각한다. 열린 대화와 같은 설교를 통해 청중은 설교자와 동등한 파트너로서 설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끝내 각자 스스로의 결론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설교에 대한 견해 속에서,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라기보다는 각자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개별적인 존재로 이해된다.

청중이 설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고는 북미의 개인주의적 문화를 반영한다. 그래서 윌리엄 윌레몬(William Willimon)은 신설교학이 강조하는 청중의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나 잘 형성된 성품의 결과로서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로서의 자유이다. 자유는 그리스도를

40 예를 들어, Christian David Eichorn, “Ecclesial Preaching: The Homiletical Theology of Vatican II AND Its Influence Upon Protestant Homiletics of the Twentieth Century” (Ph.D. diss., Drew University, 2001), 208-209.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자유도 아니며 모든 세례받은 자들이 복음이 함축하는 바를 찾기 위해 분투하는 자유도 아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에서의 자유는 성경이나 공동체와는 관계없는 개인의 자유, 즉 그 자신이 민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이다.⁴¹

신설교학의 청중에 대한 개념은 미국 개인주의의 토양 위에서 자라났다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신설교학이 제시하는 설교의 목적 또한 신설교학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화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설교학은 설교를 통해 청중에게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경험은 개별 청중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경험이다. 신설교학이 설교에서 추구하는 경험이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그들이 근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 신해석학의 ‘언어 사건’ 자체가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언어 사건’은 개별적 자아가 자기 이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이다.⁴² 그러므로 신설교학이 이루려는 설교에서의 사건은 개별적 청중의 편에서 경험을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신설교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청중은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청중이 아니라 개별적 청중이라고 할 수 있다. 찰스 캠펠(Charles Campbell)은 크래독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아주 제한적인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비평한다.

크래독이 생각하는 언어적 공동체는 설교가 행해질 때 존재하는 순간적인 사건으로서의 공동체이다. 그가 신해석학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 크래독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독특한 언어나 실천을 공유하지도 않고, 공동체적 권위나 공동체적으로 합의해 가는 과정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저 복음의 의미에 대해 자기가 각자의 결론을 내리는 개인들이 잠깐 모인 정도에 불과하다.⁴³

41 William H. Willimon, *Peculiar Speech: Preaching to the Baptized*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1992), 48-49.

42 실존주의 철학이 ‘언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광현, “신설교학의 중심 전제, 언어의 사건성: 그 신학적 기원과 영향,” 206-213을 보라.

43 Campbell, *Preaching Jesus*, 134.

사실 이 비평은 크래독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목적을 경험적인 사건에 두는 대부분의 신설교학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신설교학의 경험에 대한 강조는 그들의 설교의 이론과 실천의 방향을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이끌게 되었다.

개별 청중에게 호소하기 위한 설교 형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설교의 더 큰 맥락, 즉 설교가 일어나는 현장인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설교의 기술적인 면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비판하면서, 제임스 톰슨(James Thompson)은 “신설교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종류의 설교가 어떻게 윤리적인 가르침과 사명과 함께 공동체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다.⁴⁴ 내러티브 설교에 있어서도 신설교학자들의 관심은 청중에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내러티브의 기술적인 사용에 제한되어 있고,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성경 내러티브의 역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신설교학은 개별 청중에게 호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쏟다 보니, 개별 청중을 넘어서는 더 크고 넓은 청중의 존재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었다.

끝으로, 청중의 권위를 존중하는 신설교학의 설교적 접근은 청중의 근본적인 확신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반권위적이고 탈권위적인 시대에 적실한 설교를 추구하면서, 신설교학은 청중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는 설교를 권위적이라고 치부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신설교학의 영향을 입은 설교자들은 청중이 깊이 몰들어 있는 미국의 개인주의나 오락적인 문화에 대항하여 설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존 라이트(John Wright)는 귀납적 설교에 대해 평가하면서, 현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청중에게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망상은 줄 수 있지만 … 절벽 밑에 있는 같은 장소로 항상 돌아가도록 만든다.”라고 비판한다.⁴⁵ 리처드 리셔(Richard Lischer)도 “지금의 설교는 자아의 필요에

⁴⁴ Thompson, *Preaching Like Paul*, 14.

⁴⁵ John W. Wright, *God's Telling Sto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7), 85.

대해서는 명백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대해서는 희미하다.”라고 논평한다.⁴⁶ 신설교학의 영향을 입은 설교 아래서, 개인주의를 포함한 청중의 확신은 유지되고, 고무되고, 심지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설교학의 ‘청중으로 방향 전환’은 ‘교회로 방향 전환’이 아니라 ‘개별 청중으로 방향 전환’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III. 결론

신설교학은 전통적인 설교가 더 이상 현대 청중에게 매력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는 비판 위에서 태동했다. 신설교학에 따르면, 전통적인 설교는 설교자의 권위에 근거한 설교자 중심 설교이며 성경의 장르나 청중의 청취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 아이디어 중심 설교이다. 전통적인 설교를 반대하며, 신설교학은 청중 중심 설교를 구현했다.

청중 중심 설교는 청중을 설교의 파트너로 인식한다. 청중은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지 않고, 오히려 설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설교를 개인적으로 경험한다.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대신, 신설교학은 설교에서 청중에게 경험을 제공하려고 한다. 청중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설교를 구성하기 위해, 신설교학자들은 청중을 위해서 다양한 설교형식을 개발하였다. 신설교학은 새로운 청중 이해에 근거해 현대 설교학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개혁주의신학이 강조한 설교와 교회 공동체의 밀접한 관계를 간과하고 개별 청중 중심의 설교를 강화하였다.

⁴⁶ Richard Lischer, “The Limits of Story,” *Interpretation* 38, no. 1 (1984), 36.

[참고문헌]

- Eslinger, Richard L. *The Web of Preaching*. 주승중 역. 『설교 그물짜기』.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8.
- Greidanus, Sidney.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김영철 역.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서울: 여수론, 2012.
- Lowry, Eugene L. *How to Preach a Parable*. 이주엽 역. 『설교자여,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돼라』. 서울: 요단, 1999.
- Long, Thomas G. *The Witness of Preaching*. 이우제, 황의무 역. 『증언 설교』. 서울: CLC, 2019.
- Rose, Lucy Atkinson. *Sharing the Word: Preaching in the Roundtable Church*. 이승진 역. 『하나님 말씀과 대화 설교』. 서울: CLC, 2010.
- Allen, David. "A Tale of Two Roads: Homiletics and Biblical Authority,"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3. no. 3 (2000), 489-516.
- Allen, O. Wesley ed. *The Renewed Homiletic*.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 Allen, Ronald J. "The Turn to the Listener: A Selective Review of a Recent Trend in Preaching." *Encounter* 64. no. 2 (2003), 167-196.
- Brueggemann, Walter. *Biblical Perspectives on Evangelism: Living in a Three-Storeyed Univers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Campbell, Charles L. *Preaching Jesus: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1997.
- Chapell, Bryan. "When Narrative is not Enough." *Presbyterion* 22. no. 1 (1996), 3-16.
- Craddock, Fred B. *Overhearing the Gospel*. St. Louis: Chalice Press, 2002.
- Eichorn, Christian David. "Ecclesial Preaching: The Homiletical Theology of Vatican II AND Its Influence Upon Protestant Homiletics of the Twentieth Century." Ph.D. diss., Drew University, 2001.
- Eslinger, Richard L. *A New Hearing: Living Options in Homiletic Methods*.

-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 Lischer, Richard. "The Limits of Story," *Interpretation* 38. no. 1 (1984), 26-38.
- Long, Thomas G. "And How Shall They Hear?," in *Listening to the Word: Studies in Honor of Fred B. Craddock*, eds. Gail R. O'Day and Thomas G. Lo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 Lowry, Eugene L. "The Revolution of Sermonic Shape," in *Listening to the Word: Studies in Honor of Fred B. Craddock*, eds. Gail R. O'Day and Thomas G. Lo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 _____. *Doing Time in the Pulpit: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and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 _____.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_____.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 Mulligan, Mary Alice and others, *Believing in Preaching: What Listeners Hear in Sermons*. St. Louis: Chalice Press, 2005.
- O'Day Gail R. and Thomas G. Long, "Introduction" in *Listening the the Word: Studies in Honor of Fred B. Craddock*, eds. Gail R. O'Day and Thomas G. Lo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 Randolph, David James. *The Renewal of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9.
- Randolph, David James, and Robert Stephen Reid. *The Renewal of Preach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Next Homiletics Commentary*. Eugene: Cascade Books, 2009.
- Thompson, James. *Preaching Like Paul: Homiletical Wisdom for Toda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Willimon, William H. *Peculiar Speech: Preaching to the Baptized*.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1992.
- Wilson, Paul Scott. *The Practice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 Wright, John W. *God's Telling Sto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7.

- 김창훈. “포스트모더니즘과 설교.” 『헤르메니아 투데이』 56 (2013), 37-47.
- 정재웅. “설교자의 권위에 관한 비평적 고찰: 프레드 크래독 이후 북미 현대설교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설교한국』 11 (2020), 113-153.
- 조광현. “신설교학의 중심 전제, 언어의 사건성: 그 신학적 기원과 영향.” 『복음과 실천신학』 46 (2018), 202-229.
- 조광현, 김현숙.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내 설교학 분야 연구동향 연구.” 『성경과 신학』 102 (2022), 27-51.

[Abstract]**The New Homiletic : The Turn to the Individual Listener**

Kwang Hyun Cho

(Korea Theological Seminary, Assistant Professor, Homiletic Theology)

It was born out of the criticism that traditional preaching was no longer engaging or relevant to contemporary listeners. According to the New Homiletic, traditional preaching is preacher-centered based on the authority of the preacher, and idea-centered preaching with no regard for the various genre of the Bible or the way the listeners listens. In opposition to traditional preaching, the New Homiletic embodied listener-centered preaching.

In their quest for listener-centered preaching, the proponents of the New Homiletic viewed preaching as a conversation and the listener as a partner in preaching. In preaching as a conversation, the listener does not passively listen to the sermon, but rather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sermon and experiences it personally. Instead of the traditional task of preaching to teach biblical content, assuming that the modern listeners are already familiar with the biblical content, the scholars of the New Homiletic sought to provide an experience for the listeners in preaching. In order to provide an experience, they developed a variety of sermon forms, along with an awareness of the literary genres of the biblical text. Based on this new and extended understanding of the listeners, the New Homiletic breathed new life into contemporary preaching.

However, by overemphasizing the role of the listener in

preaching, the listeners are not understood as the church obeying the Word of God, but rather as individual listeners who have the freedom and right to draw their own conclusions. Furthermore, the experience that the New Homiletic seeks to provide through preaching is a personal experience that happens to each individual listener. Finally, the New Homiletic overlook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reaching and the church community which has been the centerpiece of the Reformed tradition, and emphasized individual listener-centered preaching.

Key Words: The New Homiletic, Listener-centered preaching, Experience, Form, Narrative preaching, Orientation to individual listener

